

전남 동부권

# 득량만 실뱀장어들 어디갔나

## 저수온·강풍에 회귀못해 50%이상 줄어...어민 울상

최근 수온저하와 강풍으로 인해 고흥과 장흥 등 득량만 일대에서 잡히는 실뱀장어의 어획량이 급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고흥·장흥지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말부터 득량만 일대에서 잡히기 시작한 실뱀장어 잡이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득량만 일대 70여 어가에서 하루 5kg 이상 잡았던 실뱀장어 잡이가 요즘 1~2kg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

이러한 어획 부진은 실뱀장어가 연안으로 오르는 2~3월에 바람이 잦아들고 저수온 등으로 제대로 회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득량만 일대 3월 평균 수온은 10.5도로 평년보다 1도가량 낮다. 어획량 감소로 산지 가격은 마리당 2200원선



으로 예년보다 배 가까이 올랐다. kg 당 가격도 예년 600만~700만원선에서 1200만원으로 급등했다.

이우시개 정도 크기의 실뱀장어는 필리핀 연안에서 부화한 후 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남해안까지 회유, 강 하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 잡힌 치어는 양만장에서 양식용으로 이용된다.

득량만 일대는 70여명의 주인이 허

가를 받아 실뱀장어 잡이를 하고 있으며 3개월에 연간 5억~6억원의 짝짱한 소득을 올려 왔다.

국내 양식뱀장어 치어는 유럽과 대만, 홍콩 등지에서 상당량이 수입되고 있으며 오는 2013년부터는 '국제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거래에 관한 조약'(CITES)에 따라 유럽산 거래는 중단돼 국내 양식업계의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소 관계자는 "실뱀장어 어획이 좋지 않아 어민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지역 어업인에게 실뱀장어 어획 정보와 수출입, 시장 동향 등을 신속히 제공, 어민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 순천만 월동 두루미 525마리...개체수 사상 최대

지난 겨울 순천만에서 월동한 두루미 개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에서 올해 겨울을 난 두루미류는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검은목두루미 등 3종 525마리로 확인됐다. 이는 두루미가 순천만에서 월동을 시작한 이래 확인된 가장 많은 숫자다.

현재 순천만 일대에는 100여 마

리마가 순천만에 나타나기 시작해 6개월가량 월동을 한 뒤 3월 중순께부터 수십 마리씩 무리지어 고흥인 시베리아로 떠나기 시작했다.

현제 순천만 일대에는 100여 마

리가 아직 떠나지 않고 있으며 이들 개체수에 예년처럼 이달 초 모두 시베리아로 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두루미 개체수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전례 없는 338개를 앞두고 철새 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친환경정책이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 광양 명당1산단 준공 보인다

### 국민권익위, 착오매립지 문제 처리 합의

광양시 국가산업단지내 명당 1지구 준공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명당 1지구의 개발대행업체인 (주)포스틸은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108㎡를 착오로 매립하면서 10만5153㎡규모의 명당1지구 전체를 준공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30일 광양시 (주)광양 SPFC(구 삼현철강) 회의실에서 이계호 전남도 부지사, 이성웅 광양시장이 참여

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고 해당 단지를 준공처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포스틸이 공유수면 일부를 착오매립하자 준공처리를 담당하는 광양시는 착오 매립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전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조치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고, 전남도 역시 해당 매립지를 원상회복한 후 별도의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이번 중재로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전남도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광양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중재안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조정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명당 1지구가 준공처리되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해 1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이번 조정이 앞으로 지역경제 부흥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항 1만 TEU급 선박 기항

### '한진 네덜란드호' 내일 취항...물동량 증가 기대

광양항에 1만 TEU급 초대형 선박이 기항, 물동량 증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이상조)은 2일 한진해운 광양터미널에서 1만 TEU급 초대형 선박인 '한진 네덜란드호'(총톤수 11만3515t)의 첫 취항 기념행사를 갖는다.

총길이 349m·폭 46m 규모의 '한진 네덜란드호'는 20피트(ft)짜리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1만개를 싣고 25.1노트(시속 46.5km)로 운항할 수 있으며, 광양항을 시작으로 중국·홍콩·영국 해리스토투·싱가포르 등에 주 1회 운항한다.

선박대형화 추세 따라 최근 건조되는 대형 선박은 수심 15m 이상의 항만에 서만 접안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15~19m의 깊은 수심을 보유한 광양항을 이용하는 초대형 선박이 줄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해운 광양터미널 이재근 차장은 "컨테이너 적재량이 늘어 향후 신규물량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순 천 지 사	(061) 746-8111
여 수 지 사	(061) 653-8444
광 양 지 사	(061) 792-8111
고 흥 지 사	(061) 842-2121
보 성 지 사	(061) 853-1190
구 레 지 사	(061) 783-8111

## 고흥 농수산물·김 판로 확대

### 郡-두영푸드 친환경 브랜드 공동마케팅 협약

고흥군과 (주)두영푸드(대표 홍운철)는 지난 29일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 및 고품질 친환경 브랜드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흥 김의 공동마케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고흥 농수산물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홍보 마케팅 채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고흥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가공까지 새로운 유통 변화를 추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흥 김밥용 김은 연간 1480만송 생산, 전국 소비량의 80%를 차지하면서도 그동안 산지 출하시기 급급조절 불안과 브랜드화 미비로 타지역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출하돼 마진

가공생산자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군은 앞으로 ▲고흥 김 지리표식 제 등록 ▲시설현대화 ▲2차 가공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 김 브랜드화 등을 추진하고, 고흥군유통(주)를 통해 출하시기 수급조절로 산지 가격협상력을 도모, 생산자의 수취가격 보존에 노력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난 1월 풀무원 식품에 이은 (주)두영푸드와 협약을 통해 고흥 매생이 김 상품개발을 통한 차별화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산지가공공장 유치 활동에도 연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 "상생의 정음·고창·부안"

### 인사교류·관광 개발 등 공동발전 협약



왼쪽부터 이강수 고창군수, 김생기 정음시장, 김호수 부안군수.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서남권에 위치한 정음시와 고창군, 부안군은 지난 31일 정음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사교류와 관광 개발 등 3개 시·군의 공동발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생기 정음시장과 이강수 고창군수, 김호수 부안군수는 3개 지역이 발전하려면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이후 부단체장 간담회와 시·군 실무자간 교류범위와 교류방법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르면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광역행정 체제로의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 능력개발은 물론 상호 비교우위에 있는 선진 행정을 서로 공유하고, 전북의 서남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또한 5급 이하 직원의 인사교류를 위한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농어업, 복지, 교육, 의료 분야까지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윤길호·홍윤선기자 parkks@

## 전북 태양광 산업 '햇살'

### 군산-OCI 10조 유치 이어 익산-넥셀론 3810억 협약

도내 태양광산업이 급성장세를 보이는데 따라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 태양전지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주)넥셀론은 31일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에서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군산 OCI(주) 10조원 투자에 이은 대규모 투자유치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주)넥셀론은 신흥동 익산 제1 국가산단 잔여부지 3만3058㎡에 오는 2013년까지 총 3810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제1공장 증축(건물·기계장치) ▲제2공장 설비(기계장치) ▲제3공장 신축(건물·기계장치) ▲부대시설(주차타워·제2복지동) 건립 등 태양광발전용 '잉곳'(ingot=폴리실리콘을 녹여 균

일한 덩어리로 만든 것)과 '웨이퍼'(wafer=잉곳을 0.2mm로 얇게 자른 것) 생산을 위한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태양광발전 연관기업과 산업클러스터를 구축,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주)넥셀론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 6만2810㎡ 부지에 총 40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하고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를 생산, 전년대비 기준 4513억원의 매출과 2933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주)넥셀론은 오는 2013년 공장완공 이후 연매출액 9600억원, 수출 5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경

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넥셀론은 단계별로 고졸 및 전문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직과 대졸 경력직 등 470여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넥셀론의 증설투자 확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신규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군산 지방산단에 소재한 OCI(주)에서 태양광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익산국가산단에 소재한 (주)넥셀론에서는 잉곳과 웨이퍼를, 전주 과학산단에 소재한 (주)솔라월드코리아에서는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변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류정영기자 knews@

## 전주 전라감영 '부분 복원'

### 시 "관광객 유치 효과 적고 고증 어려움"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부분 복원'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전라감영의 완전 복원 대신 선화당 등 일부 주요 건물만을 복원하는 '부분 복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위원회는 전라감영을 모두 복원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정부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다른 지역의 복원된 감영들이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크지 않으며 복

원을 위한 고증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구체적인 복원 대상건물과 전라감영 터에 있는 옛 도청사의 철거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전주시 장경은 전통문화과장은 "현재 확보된 부지내에 있으면서 고증자료가 있는 선화당을 중심으로 연신당, 응청당 등 몇몇 상징적 건물만 복원하는 쪽으로 가다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동철기자 k0765@

### 전주 시내버스 내주 감사청구

### 전북 시민사회단체 서명운동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가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운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전주시가 규정과 원칙을 벗어나 적자노선 보조금과 무료 환승 보조금을 지급했고, 보조금 상정의 근거가 된 경영진단 연구용역도 엉터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는 이번 주에 시민 서명운동을 거쳐 다음주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김동철기자 k0765@

## 군산 노후 공동주택 보수 13개 단지 선정

군산시는 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열고 2011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수 사업비 지원대상 13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에 신청한 4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20세대 이상 단지는 동북아파트 외 6개 단지를, 20세대 미만은 소룡동 국민 주택 외 5개 단지를 선정하는 등 총 13개 단지를 지원사업 대상 단지로 확

정했다. 이번 사업은 규모별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20%의 자체부담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경관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건물 도장, 옥상 방수, 단지내 재포장 등으로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 단신

### 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업 시험포 개발

전북도 농업기술원(원장 조영철)은 오는 5월초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업 시험포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농촌진흥청과 전북도 농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는 공동으로 농업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물빠짐이 완료된 후

드러난 새만금간척지 내에 지난 2007년부터 첨단농업 시험포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험포에는 현재 톨미 15개 품종 100만구가 부지 4ha(4만㎡)에 식재돼 있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정음 감곡면 '감나무 명품거리' 조성

정음시 감곡면이 지역의 상징인 감나무 명품거리 조성에 나섰다.

감곡면은 올해 감나무를 미래 소득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천곡마을 입구에서 천촌마을 입구에 이르는 2km 구간에 3~5년생 감나무 500그루를 식재할 계획이

다.

이를 위해 감곡면은 감나무 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몽기)를 구성, 지역단체와 면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감나무 헌수(獻樹)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남원 사료용 옥수수 재배면적 2배 늘려

남원시는 올해 하계 사료작물인 옥수수 재배면적을 지난해 50ha보다 2배 늘린 100ha를 재배한다. 또 옥수수 전용수확기 2대(대·소형 각 1대)를 조사료 경정체에 지원해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원활한 수확작업이 되도록 해 사료값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

화와 축산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옥수수는 하계 조사료작물로 축산농가의 선호도가 높지만, 옥수수 수확작업에 필요한 고가의 기계장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 김제보건소 '비만탈출' 희망자 모집

김제시 보건소(소장 이병철)는 다음달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주간 보건소 2층 체력증진실에서 '렛츠 고(Let's GO) 비만탈출' 유산소 순환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

오전반 20명(오전 9시 30~10시 30분) ▲오후반 20명(오후 3시 30~4시 30분) 등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문의(063-540-1332).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